

# 인도네시아의 石油開發현황

지난 2년간 인도네시아에서의 石油探査 활동은 침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인도네시아와 석유개발 契約을 체결한 회사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석유개발계약 현황을 보면 1983년에는 3건, 1984년에는 2건에 그치고 있는데, 72~82년간에는 연간 평균 10件이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石油開發活動이 침체된 이유는 石油가격의 약세 내지 하락, 改正된 세제의 불확실한 영향, 有望鑛區의 신규계약이 부진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높은 탐사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原油 및 天然가스 수준이 外貨 획득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연료 수요도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석유 埋藏量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는 대부분 소규모 분지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생산증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전 개발을 활발히 벌여야 할 임박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매장량 발견 속도보다도 빠르게 石油를 생산해 왔다.

經濟學者들은 인도네시아의 침체된 探査活動이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OPEC나 기타 分析機關들이 예측하고 있는 1990년대의 유가 상승을 對比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산유국들 모두가 똑같이 탐사활동의 축소로 예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 探査예산 감소

인도네시아 國營石油會社 Pertamina는 단기적 전망이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1985년에는 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Pertamina의 S. Zuhdi Pane 홍보담당이사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石油市場이 침체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침체로부터의 회복이 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은 탄성과 탐사와 시굴정 시추로 따질 때 상당히 바람직한 수준을 이루었다고 Pane이사는 보고 있다.

Pane이사와 外國會社의 경영진들은 조건이 좋을 때 체결된 수년전의 계약으로 해서 작년의 탐사활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례로 볼 때, 계약회사들이 探査費 지출을 줄인 그 다음 해 중반에는 探査費 지출이 피크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Pertamina는 아직 84년의 外國會社들이 探査費지출 실태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금년의 탐사 예산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4년에는 外國石油會社들은 탐사예산을

## □ 海外石油開發 □

9億3千2百萬 달러로 策定한 바 있다고 자카르타 주재 美國 대사관의 石油연감은 밝히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한 것이다. 실제 지출 비용은 아마도 예산을 못미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石油會社 경영진은 말하고 있다.

1983년 탐사 支出費用은 예산을 좀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1983년에 외국 契約會社들은 탐사비용으로 12億2千萬달러를 책정했는데 실제 지출비용은 10億9千萬달러로서 이는 1982년에 비해 4.3%가 감소한 것이었다.

探查費用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전에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5個年開發計劃은 탐사비용 지출이 3月 31일에 종료되는 現 會計年度의 11億9千萬 달러에서 1989년 3月 31일에 끝나는 會計年度에는 14億5千萬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연간 250개의 탐사정을 시추하고, 연간 65,000km<sup>2</sup>의 탄성과 探查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探查活動도 목표미달

石油會社들은 1984년에 241개 탐사정 시추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石油產業界에서는 보고 있다. 1983년도에는 石油會社들은 목표에 미달, 계획된 323개정중 264개정만을 시추했을 뿐이다.

게다가 石油會社의 경영진들은 1984년의 探查試錐가 주로 확인된 분지의 중심이나 그 부근에서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을 위한 신규지역과 유망한 지역을 더 많이 공개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탐사활동의 침체는 開發試錐—확인된 유전의 시추—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試錐契約會社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開發試錐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움에 따라 활발한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石油產業界는 보고 있다. 몇몇개의 대형 유전들은 평균 30년의 계약기간중 20년을 경과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유전을 포기하기 전의 10년 동안 가능한한 많이 石

油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開發試錐 활동도 머지 않아 감소하리라고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石油價格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 탄성과 探查도 저조예상

1984년에는 탄성과 탐사활동 또한 저조했으며, 금년에도 많이 증가하리라고는 예측되지 않는다. 탄성과 탐사란 보통 石油발견 활동의 첫 단계인 것이다.

1984년에 石油會社들은 31,787km<sup>2</sup>의 탄성과 탐사를 계획한 바 있는데, 이는 1979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의 예산이었다고 美國 대사관의 석유연감은 밝히고 있다.

『우리는 1984년에 30,000km<sup>2</sup>를 探查했을 뿐』이라고 어느 探查會社의 社長은 말하고 있다. 1983년에는 69,124 km<sup>2</sup>의 탄성과 탐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계획보다 약간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영진들은 금년에 탄성과 탐사활동이 증가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조만간에 4건의 생산분배 石油探查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계약중 2건의 계약은 작년에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가 세제를 개정함으로써 지연되어 왔었다.

새로운 세제는 1984년 1月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Pertamina는 작년에 2건의 계약만을 체결했는데 이 2건의 계약이 모두 이전의 세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다.

Pertamina側은 會社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石油會社 경영진들은 Pertamina가 그들의 納稅義務에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이미 Pertamina는 1년간의 탐사활동을 손해보고 있다고 石油會社 경영진들은 말하고 있다.

### 새로운 稅制가 장애물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세제 실시를 어떻게 계획하

고 있는가에 대한 혼란은 모든 형태의 外國投資를 동결시켜 놓고 있다. 새로운 세제는 法人所得稅率을 45%에서 35%로 낮추어 놓고 있으나, 특히 石油 및 鑛物 開發會社들은 減價償却 스킴과 부수입에 대한 세제의 변경이 전체적인 納稅義務를 보다 가중시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Pertamina는 세제問題가 해결되고, 2월까지 지연된 2건의 생산분배계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몇몇 업계소식통들은 이 2건의 계약이 美國의 Diamond Shamrock Corp. 계열인 Ilapco와 캐나다의 Sceptre Resources Ltd. 계열인 Sceptre Resources Indonesia에 의해 체결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Ilapco는 이리안자야 남쪽의 아라푸라해에 있는 Aru 鑛區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Sceptre는 칼리만탄 북동해역의 Bunyu 鑛區를 획득하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2개회사는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를 않다.

한편, Pertamina는 수마트라해역 말라카 해협에 있는 Riau와 Muara Kampar 鑛區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광구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산업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는데 이는 Standard Oil Co.의 합작회사인 Caltex of California, Texaco Inc., Mobil Oil Co. 등이 소유, 성공한 鑛區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 유망 鑛區도 적어

Pertamina는 금년에 얼마나 되는 鑛區를 제공해야 할지 결정을 못내린 상태라고 Pane이사는 말하고 있다.

石油會社의 경영진들은 2개 또는 3개 지역이 1985년의 입찰에 공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Pertamina 所有 鑛區에는 유망광구가 남아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유전이 남아 있으리라고 보는 석유회사 경영진들은 없다. 그러나 Pertamina의 Pane이사는 자신이 變更地域에서 石油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아라푸라해의에도 Caltex가 소유하고 있는 수마트라의 Sinkarex 鑛區, 미국의 Allied Core. 계열인 Union Texas가 작업하고 있는 Sulawesi의 Tomori 鑛區, Standard Oil Co. 계열회사가 심해에서 시추하고 있는 Lombok 鑛區, Union Texas가 시추하고 있는 자바의 Cilacap해역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鑛區의 대부분이 2년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개발작업에서의 성공이 용이한 유전은 모두 발견되었다는 일반의 견해를 뒤엎을지도 모른다고 Pane이사는 말하고 있다.

石油産業內的 모든 문제에 부가하여 美國내의 기업합병극이 外國會社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나 기타 지역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産業消息通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물들이 farm-in 去來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外國會社의 경영진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한 거래를 통해 石油埋藏量이 필요한 회사들이 운영비를 감소시키려는 회사들의 既存 유전의 주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外國石油會社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 있어서 石油를 발견하기 위한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역이 石油발견의 가능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석유회사 경영진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치적 안정과 우수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매력적인 산유국으로 손꼽고 있는 것이다. \*

(주간石油뉴스)

## 너와나의 식량절약 이룩되는 식량자급